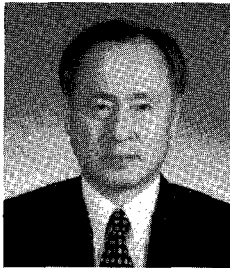




경기위축과 환율변동이 축산에 미치는 영향



유 철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작년 12월 시작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축산은 농업중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 우리 나라 축산은 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진전으로 그 장래가 매우 우려되어 왔던 터에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부터 축산경영여건은 최악의 수렁으로 추락해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상승하고 동시에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산지가격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였고, 관련업체들이 도산하여 왔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 위축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 구

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나라 경제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여, 경제 성장률은 금년 1/4분기 -3.9%에서 2/4분기에는 -6.6%로 하락하였다.

정부 발표나 민간연구소의 금년 경제성장률에 관한 전망치를 보더라도 모두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두 차례, 1956년 -1.3%, 그리고 1980년 -2.7%로 국내 총생산이 위축된 적이 있으나, 그 다음해에는 바로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 하락세는 과거 유례가 없이 규모가 크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 연구소의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 바닥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기 시작하여, 내년에는 경제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한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줄곧 낮아지게 될 경기 하락 폭이 너무나 커서 작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세월이 걸릴 전망이다.

환율의 변동도 큰 문제다. 우리 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된 시기를 전후하여, 불과 며칠 사이에 환율이 800~900원 선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자금과 외국에서 자금 차입, 만기도래 자금의 상환 연기, 그리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몇 달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은 1,300~1,400원에서 안정되어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작년 12월 외환 위기 때보다 외

화 보유고가 10배나 되어 외환 수급사정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환율도 상당기간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외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요인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언제 환율이 급변하게 될 지 반성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환율의 변동이 우리 나라 축산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환율이 상승하면 배합사료, 유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가격상승으로, 축산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바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물이 가격이 따라 상승하지 않으면 축산경영은 악화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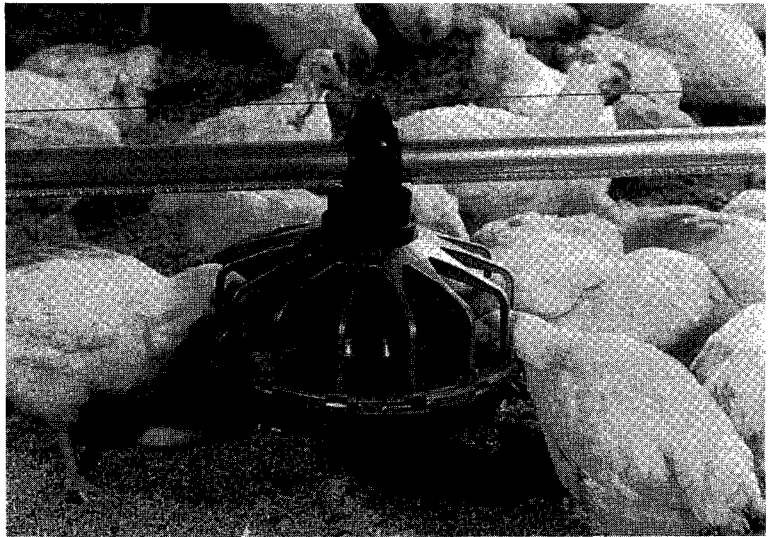
이미 사료가격은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환율 1,300~1,400원 수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산지 생축가격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시작이전 보다 하락하여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산지 소가격이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 변동전보다 더 오르지 않는 전망이고,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와 돼지고기 소비침체로 크게 하락하여 있다. 한편 환율 상승이 축산물 수·출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하겠다.

우리 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쇠고기의 가격은 수입가격이 비싸져, 수입은 크게 억제되고,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축산물 수출품목인 돼지고기 수출의 경우 수입국인 일본시장에서 경쟁국 돼지고기보다 우리 나라가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싸져 환율 변동전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환율상승은 쇠고기 수입의 억제 효과와,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나 축산물 수출입 측면에서 보면, 외견상 득이 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전후한 환율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에 이어서 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사료 의존형인 우리 나라 축산은 득 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한 농업부문 전망자료에 의하면, 금년 축산 부문은 쇠고기의 생산액은 크게 감소하나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액은 증가하여 축산 생산액은 3,217억원 증가하나, 사료 비용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증가하여 축산소득은 4,8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로 1997년 축산물 생산액은 6조 9천 30억 원으로 그중 한우 2조1천70억원, 돼지 1조9천 600억, 우유 9억6천20억원, 닭 7천7백30억원, 계란 6천3백40억원이었다.

작년 12월 큰 폭의 환율 변동으로 사료업체들은 사료원료 구매를 위하여 외화를 확보하느라, 사료업체들이 외상 판매 제한으로 양축가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우리 나라 축산에 한차례 태풍이 몰아 쳤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 안정과 양축가 업계의 자구적인 경영 합리화 노력으로 외견상, 1,300~1,400원대 환율 시대에 적응하여 나아가고 있다.

배합사료가격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 이전에 비하여 9% 상승 수준으로 낮아졌다. 축종별 동향을 보면,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산지

소 가격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돼지사육 두수는 증가하였고, 산지가격 하락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육계가격과 계란 가격은 상승하여 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경기 하강으로 소득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축산물 소비증가율의 둔화, 또는 절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있다. 금년에 와서 민간 소비지출은 지난 1/4분기에는 전년대비 10.6%, 2/4분기에는 12.9%가 감소하여 축산물 수요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앞으로 수입도 줄고 경제가 살아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인식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지출을 더욱 줄이겠다고 답하고,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이겠다는 부문에는 꼭 필요한 음식료 지출까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아 당분간 소비가 되살아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중 돼지고기 소비를 제외하고 쇠고기, 우유 닭고기 소비 모두 지난

현재의 축산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경기급냉으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 있으므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축산경영 여건을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축산물 수요진작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소비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면 산지가격의 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양축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촉진책으로, 소비금융자금을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엄청난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선진 경제 몇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나라들 마다 경기부양에 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기 부양도 금년 내내 추진중인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축산물 수요 감퇴, 그리고 환율 상승의 영향은 여러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고 피해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 규모 소 사육농가들을 중심으로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수년동안 정부의 축산구조 개선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을 늘렸던 양축농

가 들은 사료비 인상, 시설 리스 부담가중 등으로 전례 없던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사료업체 유업체 동물 약품회사 등 관련 업체들이 도산하였고, 축산물 유통, 축산물 가공 업체들도 유례없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축산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사업을 지속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여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몇 차례의 젓소 송아지 폐기 사건 등도, 모두 경기침체에 의한 경영악화의 결과이다. 젓소 송아지 폐기 사태에 당면하여, 젓소 송아지 수매와 위탁사육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정책적 대응이었으나, 젓소 송아지 사육자금이 적어 사육부실에 따른 송아지 폐사나 비육중인 송아지 처리방식으로 놓고, 언론에서는 정책실패의 사례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축산분야 자금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산지 소 가격 회복이 늦어지고,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 출하가 증가하여, 소 수매에 엄청난 자금 투입으로 외부차입이 불가피하였다. 더욱이 과거 양축가들에게 지원된 축산구조개선 사업 자금 등의 상환 유예와 환율상승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감소, 수입쇠고기 소비감소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납입금이 크게 줄어, 앞으로 정부

의 축산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축산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경기급냉으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 있으므로, 악화 될 대로 악화된 축산경영여건을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축산물

수요진작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소비촉진에는 이미 정부,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되어왔고,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축산물 소비확대에 이제는 양축가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위축에 의한 축산물 소비량의 감소는 금년 한해로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시작되어야 할 소비촉진 운동은 과거 특정 축산물이 과잉 문제

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단체 중심으로 거리에 나서서 고기 한 근 더 먹기, 우유 한 컵 더 마시기, 계란 한 줄 더 사기 등의 소비촉진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양축가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방법의 하나로 양축가들은 관련단체에서 오래 추진하여온 자조금 제도의 조속 도입에 앞장서서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련, 나머지 강조할 점은 축산물 소비자 가격 인하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직거래 확대, 수출 확대 등이다.

특히 축산물 수출의 확대는 축산물 수요확대 측면 뿐만 아니라, 외환사정을 호전시키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체질 개선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양계**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주간 양계속보

-주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